

고통의 문제

- 손봉호 저/ 「고통받는 인간」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교수, 서강대 IVF 지도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 실행위원, 본회 연구위원

1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다. 고통은 도처에 존재하고 마치 도적같이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온다. 여인이 해산한 사람 가운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땅 위에 아무도 없다. 인간만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표현한다. 성정(性情)을 가진 존재면 누구나 고통을 체험하고 고통을 표현한다. 바울은 심지어 자연계 전체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가히 뛰어난 '생태학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고, 고통 자체에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위대한 종교와 철학, 과학과 문화도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고통입'(一切皆苦)을 알지 못했다면 불교는 없었을 것이며,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고통이 없고, 생성과 변화, 존재의 우연성이 없었다면 철학적 사유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사람은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 성취하

여 문화를 형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통은 인간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행동을 자극한다.

그런데 고통에 대한 사유는 고통의 경험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실제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만큼 현실적인 것도 없다. 꿈과 생시를 구별하려면 꼬집어보라고 하듯이 꼬집음으로 인해 오는 고통은 꿈의 세계와 다른, 그야말로 ‘거친 현실’이다. 고통에 관한 사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고통의 문제는 그러므로 ‘고통의 현상학’을 통해 먼저 입문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고통의 현상학만으로는 충분한 철학적 작업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일 의미가 없다면 왜 의미가 없는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물음은 ‘고통의 해석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고통이 의미 있다면, 또는 만일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윤리의 문제, 행위의 문제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고통의 윤리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고통의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철학적 층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손봉호 교수의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층위, 즉 ‘고통의 현상학’과 ‘고통의 해석학’ 그리고 ‘고통의 윤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자신은 “이 책에서는 고통의 문제가 좀 넓은 의미로서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책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면 오히려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해석학에서 다시 윤리학으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고통이라는 현상이 어떤 종류의 현상인가 하는 것을 먼저 현상학적으로 기술해낸다(3장, 4장, 5장). 그 다음에, 고통이 인간의 삶에 갖는 의미를 역사와 관련해서(6장), 생존과 관련해서(7장)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 다룬다(9장). 마지막으로, 고통이 지닌 윤리적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다(8장과 10장).

1) 고통의 현상학

고통의 현상에 대해 저자는 무엇보다도 고통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면서 동시에 기초적 경험임을 강조한다. '원초적'인 까닭은, 그 외의 어떤 다른 경험으로도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이며, '기초적'인 까닭은 인간의 많은 경험이 고통 위에 기초해 있거나 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쾌락의 경험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인정하지만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벤담의 이론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저자의 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쾌락은 부분적으로 고통에 의해 결정되나, 고통은 쾌락 없이도 느낄 수 있다. 둘째, 고통은 지속적인 수 있는 반면, 쾌락은 잠시 경험할 뿐 지속되지 않는다(쾌락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쾌락으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즐거움을 지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해 왔다고 저자는 본다.

고통의 경험은 원초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임을 저자는 보여준다. 이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의 경험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없다. 고통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고통은 의식의 지향성을 벗어난 현실이다. 고통에 대해서는 레비나스가 강조하듯이 누구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이 될 수 없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나를 나로서 의식하게 해주는 경험이다. "저자는 고통이 있다면 언제나 자기의식이 생긴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어떤 다른 요소(사물, 타인의 존재 등)보다 고통이야말로 자기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항상 '나'만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통이 비록 주관적 경험이고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특이하게도 고통은 공개적이 되고자 하는 경험임을 지적한다. 얼굴을 찌푸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통은 공개적으로 표현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충동'(아도르노)을 저자는 언어의 생성과 발전과 관련시킨다.

2) 고통의 해석학

고통의 경험이 기술된 뒤 고통의 의미가 취급된다. 저자에 따르면 "고통 그 자체가 고통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도록 요구한다."(80면) 고통의 의미에 대한 물음

은 고통 자체를 어떤 수단이나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의 불가피한 결과를 이해함을 뜻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해, 즉 고통의 해석학이 과연 가능한가? 저자는 전통적으로 '고통의 해석학'으로서 제안된 두 견해를 다룬다. 하나는 고통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 허무주의(니체)요, 다른 하나는 고통 자체에 합리적 설명을 가하는 변신론(theodicy)(라이프니츠)이다. 또 다른 대안은 "고통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부정적인 것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헤겔과 맑스의 변증적법 역사철학이다. 저자의 결론은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어느 것도 특히 헤겔의 경우 "구체적인 개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며 따라서 고통의 의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이란 개인에게 절실한 것이고, 전체적인 악도 개인에게 아프게 느껴질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개인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에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은 고통이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인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적 설명이란 별로 의미가 없다."(96면)

그렇다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저자에 따르면 고통 그 자체가 합리적인 설명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도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고통은 없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개인과 불의한 민족이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보다 더 많은 부와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변증법으로도, 변신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자는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며, 역사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반성하게 하는 자극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의 영원한 신비로 남아 있다. (...) 고통은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해명에 의해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으며,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어 낼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따라서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는 '고통의 해석학'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가 그러한 이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은 무의미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고통의 경험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이 없는 인간 생존은 물론이고 인간의 문화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변을 펼치고 있다. 몸에 느끼는 고통은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서 정상적인 것을 회복할 것을 경고해 준다. 고통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란 사실은 통증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

해서도 입증된다. 둘째 사회적, 공동체적 생존도 고통 없이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물론 저자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 가해진 고통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저자는 만일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컸으리라고 본다. 문화와 노동도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출현하였다. “문화란 궁극적으로 고통을 제거하고, 줄이고, 최소화하고, 예방하려는 시도요, 그 전략과 결과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시도, 전략, 결과들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했을지라도 고통 극복이란 점에서 인간의 문화를 보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154면)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인간에게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누리는 데 없어서는 안될 경험이다.

3) 고통의 윤리학

역시 이 책의 백미는 고통이 지닌 윤리적 의미를 밝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고통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체는 또한 어떠한 이론적 설명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통에 접근하는 방법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고통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저자는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직면할 때 비로소 윤리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물론 고통에 이르는 인과 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과 고통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207면). 저자에 따르면 고통이 자아낸 의무감에 근거한 윤리적 당위성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은 비참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통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통해 하나의 사회 윤리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것은 이른바 ‘최소고통론’(最少苦痛論)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최소수의 최소 고통’으로 뒤집어 본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만일 고통과 쾌락이 비대칭적이고, 고통이 쾌락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록 적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 자체는 포퍼의 이른바 ‘소극적 공리주의’를 상기시킨다. 저자는 몇 가지의 논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정신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청이다. 쾌락을 추구하기 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을 더 급선무로 보는 것은 우리의 직관적 인식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다.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정(同情)의 능력(共感과 同苦의 능력)과 합리성의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것은 시민운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3

이 책을 쓴 저자는 대학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요, 교회에서 매주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무대표이면서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운동가이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변호서라고 할 수 있다. “철학 하는 사람에게 삶과 생각은 상호작용을 한다. 사유의 결과로 특정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은 또 다시 사유에 영향을 준다.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활동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동기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토로한다(v). 저자의 의도가 성공했는가 하는 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자신의 삶과 활동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데 우선 이 책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주제 면에서 그렇게 흔한 책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혹시 고통에 관한 문헌을 찾아본 사람은 고통에 관해 철학적으로 다룬 책이 얼마나 희귀한지 금방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신학자, 의학자, 문학자, 종교학자 등에 의해 고통의 문제가 다루어졌지만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인색하였다. 고대철학부터 현대철학까지 고통의 문제에 관해 최소한 20페이지 이상 논의한 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세기 철학자 가운데는 테오도르 아도르노, 장 나베르, 엠마누엘 레비나스, 막스 쉐러, 리처드 로터 등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들도 고통에 관한 단행본을 쓰지 않았다.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도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하겠다. 한 때, 불안이니, 부조리니 하는 문제들이 철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전문 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과학과 관련해서, 또는 대학에서 특정하게 연구되는 이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체적, 일상적 삶과 대부분 무관하기가 일쑤다. 하지만 철학은 아무리 이론적 주제를 다루더라도 역시 실존적일 수밖에 없고, 삶과 관련된 논의여야 함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고통을 주제로 한 이 책은 철학적 담론의 지평을 우리의 일상적, 실존적 삶에까지 넓혀준 공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전문적 철학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목회자, 시민운동 관련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